

## To. 공여자님께...

수혜자 | 수혜자 김필 님

우선 감사하단 인사말부터 해야겠네요.  
정말 고맙고 감사해요.  
저를 포함해 제 가족과 주위 분들도..

젊은 남자분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졌네요.  
골수 공여가 쉽지않은 않았을 텐데...  
수술 후유증 없이 잘 지낸다니 다행이네요.  
그리고 취업 한 거 축하해요.  
요즘 취업 힘들다 하던데 졸업 전에 벌써 사회에 발을 들이신 점 다시 한 번 힘찬 출발을 위해 축하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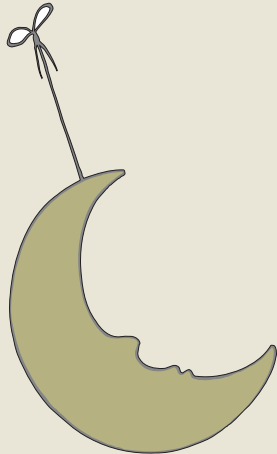
제가 이식한지 벌써 6개월째에 접어드네요.  
매일 같이 시간 언제가나 했는데, 하루하루는 더디어도 지나면 어느새 이더군요.  
퇴원 후 손이 떨려 글도 제대로 못 썼는데,  
지금은 그 때보다 살도 찌우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 
아직까지 이런저런 약한 합병증 등이 있지만 혼자 병원에 다닐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요.

보내주신 책은 잘 읽었어요.  
사실, 공여자와의 접촉이 안 된다고 해서 늘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했는데  
어느 날 코디네이터실에서 연락이 와 깜짝 놀랐어요.  
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고마움을 편지를 통해 얘기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.  
Tea 좋아하는지 모르겠네..  
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도 없을 텐데  
잠깐 시간 내어 여유 있게 차 한 잔씩 즐겨보세요.

날씨는 청명한데 꽤 쌀쌀하네요.  
난 감기가 최대의 적이라 외래가는 날 이외엔 늘 방콕입니다.  
님은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.  
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.  
그리고 주위의 따뜻한 손길도...  
편지를 얼마 만에 쓰는지 글 재주도 없고,  
제 맘만 담아 보냅니다.

이르지만 즐거운 X-mas보내시고, 2007년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 
님 덕에 저도 튼튼한 몸 만들게요.  
종종 편지할게요.  
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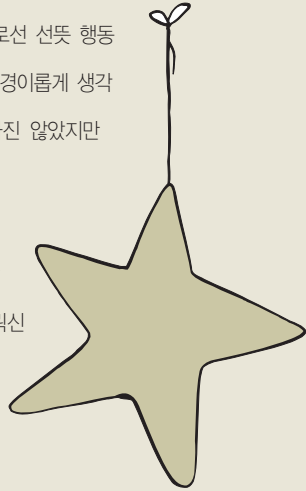
2006. 12. 4



## 천사님 부모님께.

기증자 | 박나미 님

먼저 감사에 말씀 올립니다. 저 역시 자식을 둔 부모지만 범인으로선 선뜻 행동을 옮길 수 없는 은혜를 베풀게 천사님께 용기를 주신 부모님의 뜻 경이롭게 생각합니다. 사실 전(올해 53세입니다.) 살아오면서 나눔에 대해 인식하진 않았지만 큰 나눔에는 무관심 했거든요. 더구나 제 자식 이외에 대해선 관심 밖 이었다고 봐야 되겠지요. 그런데 하느님은 제게 천사님을 보내주셔서 절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저의 삶을 바꾸어 주심으로요. 천사님 부모님 저의 가족은 모두 가톨릭신자이고, 세례도 받았지요.(저만 아직 세례를 못 받고 있지만, 꼭 받을 겁니다) 저는 신앙심이 깊지는 못하지만 매일 밤 꼭 기도하고 천사님 앞날에 광영이 있기를 빕니다.



또 언젠가는 천사님과 부모님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. 지금에 제 심정은 천사님을 제 자식과 동등하게 생각합니다.(부모님께서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당황하시겠지만요) 그래서 제 삶의 존재하는 날까지 단 하루도 잊지 않을 겁니다.

하느님의 은혜가 제겐 악몽으로 시작해 천사님과 부모님의 사랑에 힘입어 기쁨으로 마무리 되는 희열의 연말이 되는군요.

다시 한 번 감사한 맘 전하며 부모님께서도 건강하시고 맥내에 행운만이 가득하길 기도 드리겠습니다.

2006. 12. 4

천사님을 닮고 싶은 이올림.